

가는 날이 장날...광양 철쭉축제·옥곡5일장 함께 즐겨요

29~30일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가요제·난타공연·농특산물 판매

29일 옥곡 5일장 이색 먹거리 풍성

오는 주말 광양에서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와 '옥곡5일장'이 함께 열리며 상춘객들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광양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옥곡면 사무소 옆 옥구술건강센터 광장 주 무대와 국사봉 정상 특설무대 등에서 '15회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국사봉 철쭉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열린다.

백운산의 명물 국사봉은 해발 532m로, 4월이면 연분홍 철쭉이 35ha 규모로 펼쳐진다.

백운산은 억불봉, 노랭이봉, 대치재를 거쳐 남향한 지맥(地脈)이다.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 편백 숲 둘레길이 4km 이어져 등산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국사봉에는 절벽 위 아슬아슬한 바위를 괴어주는 '귤돌바위'가 있다. 그 아래 있었던 국사암을 찾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원바위로 불리기도 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는 옥구술건강문화센터 광장과 국사봉 정상 특설무대 두 곳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국사봉 발전을 위한 철쭉 헌수 모금 운동도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축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 옥구술건강문화센터 주 무대에서는 개막식 등이 펼쳐진다.

15회 철쭉가요제 예심과 본심, 난타 공연이 진행되고, 지역 가수들과 광양시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옥곡5일장 상인과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옥곡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된다.

이날 국사봉 정상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리 공연이 진행된다.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얼굴에 철쭉꽃 그리기'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국사봉 정상과 특설무대에서 오전 9시부터 우리 지역 알기 OX문제 풀기, 산나물 캐기·보물찾기, 국사봉 산상음악회 등이 마련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국사봉 철쭉로 등반대회에서는 숲해설가 2명과 함께 둘레길과 편백숲, 철쭉로를 거쳐 국사봉 정상까지 4km 구간을 2시간 동안 걷는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무지개 화원 야생화 전시, 사진 촬영 공간 등이 운영된다.

특히 국사봉 철쭉축제 첫날인 29일은 옥곡오일장(4일·9일)이 열리는 날이다.

옥곡오일장은 축제 주 무대가 있는 옥곡면 사무소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옥곡오일장은 1962년 개장해 60년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시장이다. 8571㎡(2593평) 규모에 걸쳐 56개 점포가 농수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한다. 취나물, 갑오징어 등 신선한 지역 특산물과 씨앗호떡, 소금빵 등 이색 먹거리가 풍성하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주말에는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를 찾아 쉽게 몰든 철쭉과 흥겨운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며 "신선한 지역 농산물이 풍성한 인근 옥곡전통시장도 찾아 오일장의 흥과 인정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5회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가 오는 29~30일 국사봉 정상 특설무대 등에서 4년 만에 상춘객을 만난다. 35ha에 걸쳐 펼쳐진 국사봉 철쭉 꽃밭.

로봇공모 잇단 선정...순천시 '복지로봇 선도도시' 발돋움

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 2건

순봇체험·캠프 등 프로그램도

순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로봇 사업 2건이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유망하다고 보는 미래산업은 AI·로봇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선정된 순천시의 로봇사업은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로봇 창의 교육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다.

2건의 사업에 나란히 선정된 시는 공모사업을 동력으로 로봇 교육기업을 선택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향후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복지로봇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로봇으로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2022년 공모사업을 추진해 정서지지 프로그램이 탑재된 '순봇'을 개발한 데 이어 로봇세미나, 순봇 아카데미, 순봇 체험회를 진행했다.



지역 초등학생들이 정서로봇 순봇을 체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올해는 주말체험프로그램 '순천만잡월드와 함께하는 순봇체험'을 시작으로 순봇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좀 더 고도화된 4차산업 순봇체험회, 초등학생 대상 로봇 교육, 캠프, 경진대회, 골든벨 올리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5월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

회적약자편의지원사업'에 응모해 따뜻한 로봇 동행 공동체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8기 5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정서로봇, 우주, 바이오·푸드테크, ESG경영, 웰니스산업을 선정해 이어가고 있으며, 복지로봇 특화도시로서 취약계층을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보건의료원

공보의 배치 안과진료 재개

곡성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17일부터 안과 진료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 보건의료원의 안과 진료 환자 수는 연간 3000명에 달하지만, 지난해부터 안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진료가 중단됐다. 곡성지역에는 의료원 외 민간 안과 의료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원시나 순천시, 광주 등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올해는 안과 공중보건의사가 곡성군에 배치되면서 안과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곡성 주민들은 안과 진료를 받고 세극등현미경과 안저촬영기, 각막곡률반경측정기, 비접촉식안압측정기 등 안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현재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소아과, 재활의학과, 일반진료, 치과, 한의과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곡성군 보건의료원 전경.



광양 진상 5일시장 14년 만에 재개장

집중호우 폐쇄...현대화 마무리

2009년 집중호우로 시장 기능을 잃은 진상5일시장(사진)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8일 개장한다. 진상5일장은 3일과 8일에 열린다.

1962년 개설된 진상5일시장은 광양 동부권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지만, 외곽으로 직선도로가 나면서 상권이 점차 쇠퇴했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점포가 침수돼 시장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진상면민들이 지속해서 시장 복원을 건의함에 따라 광양시는 2017년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첫 삽을 뜨고 올해 3월 노점 아케이드(지붕) 공사까지 마무리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진상5일시장에는 어물전 8곳, 노점 34곳이 들어섰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28일과 5월3일 2회에 걸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달 현재 식당과 치킨 전문점, 카페, 농자재 판매점, 건어물 상점, 떡집 등 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진상5일시장추진위원회는 업종 제한 없이 노점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12월까지 노후 상수도관 40km 세척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오래된 상수도관 40km 구간을 세척한다.

'노후 상수도관 세척사업' 대상은 16년 이상 오래된 상수도관이다. 우선지구 등 총 40km 구간에서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벌인다.

사업비는 모두 37억원이 투입된다. 상수관로에 고압수를 분사하고 솔이 달린 로봇

으로 관을 씻는 공법으로 진행한다.

물이 고이거나 이물질이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도록 물 빠짐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위주로 작업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홍보수단을 동원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청순농부',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 선정

2년간 사업비 3억 지원

순천시는 별량면 청년단체 '청순농부'가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 활성화를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2년간 총사업비 3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사업은 전남 17개 시·군의 34개 청년단체 중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선정됐다.

'청년단체 '청순농부'는 청년 순천농부라는 의미로 고향으로 U턴한 청년 등 7명이 구성된 단체다. '오늘도파랑' 청년마을을 조성해 농업과 청년,

지역주민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로 청년 농업인의 매력을 알려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구성원 모두가 농촌에 정착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예정이다.

5월부터 별량면을 거점으로 외지 청년 정착을 위한 '파타타인반', '풀타인반', 미리 청년(정소년)들과 함께하는 '방과후반' 등 지역 주민과 어우러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윤형 순천시 청년정책과장은 "청순농부가 주체가 돼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청년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유소년 전문교육...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 창단

고흥군이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해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을 창단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0년에 차범근 감독이 설립한 무료 어린이 축구교실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소년 전문 교육 기관이다.

고흥에 창단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 감각을 익혀 축구와 친숙해지도록 돕고,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 클럽축구를 경험하지 못한 지역 유소년들을 위한 체험 프로젝트다. 군은 차범근 축구교실 본격 운영에 앞서 업무협

약을 갖고 축구교실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차범근 축구교실은 전문코치 지원과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흥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수시로 축구교실을 직접 방문해 유소년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과 멘토링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1차 참가 신청이 끝났지만 더 많은 지역 유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영민(왼쪽) 고흥군수와 차범근 전 감독이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한국 축구의 영웅인 차범근 감독과 함께 힘찬 도약의 땅, 고흥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을 창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유소년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축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은 "고흥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흥의 유소년들이 축구를 함께 즐기며 우리 축구계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